

책임을 다하는 기업 계룡건설(주)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만족을...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기업 이념 아래 고객 감동을 실현시키기에 매진하고 있는 계룡건설. 계룡건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위기가 기회'라는 강한 의지로 건설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에디터 양지영

건설 산업을 통해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창업이념 아래 1970년 1월 20일 건설업 면허 제140호로 출발한 계룡건설은 인화단결, 조화창조, 책임완수의 사훈을 바탕으로 36년간 꾸준히 성장해왔다.

창립 이후 전기, 소방 설비, 항만 건설업 및 해외 건설업, 정보통신, 조정 등 각종 사업 면허 취득 및 주택 건설 지정업체 등록을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 건설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왔다.

사상 초유의 순이익 기록 계룡건설은 1996년 기업공개를 계기로 상장법인으로 서 제2의 도약을 맞이했다. 계룡건설은 1996년과 1997년에 ISO9001, ISO14001 인증을 잇따라 취득해 품질경영과 환경경영 체제를 정비했다. 또한 21세기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2002년 테크노빌리지 출자와 2001년 광통신망 시설 공급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2003년 새로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경영의 정보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기업 신용평가 회사채 부문에서 A등급을 획득했으며 4회에 걸친 해외 IR을 통해 전 세계에 계룡건설의 진가를 확인했다.

2006년 현재 자본금 446억 5000만 원에 시공능력 평가액 9157억 원으로 자회사를 포함해 1500여 명의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다. 계룡건설은 전국 23위의 건설업체로 매년 사상 초유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공사 실적으로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 대전 시청사, 동백 택지지구 개발사업, 서울 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철도, 대전 및 대구 지하철, 통일연수원 등을 뽑을 수 있다.

계룡의 자존심 '리슈빌' 계룡건설의 주택사업 브랜드 '리슈빌(Riche Ville)'은 Riche Village의 불어식 표현으로 '풍요로운 마을'을 의미한다. 리슈빌의 컨셉트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공원이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아파트, 또한 가족 구성원의 취향에 따른 맞춤형 아파트 등이다.

리슈빌은 현재 대전 노은·관저·복수, 용인 구갈·동백, 청주 산남·비하, 울산 교동, 예산 발연, 논산 취암 등 전국 각지에 차별화된 고품격 주거 공간을 선보임으로써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기술 축적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산업은 물론 공익 사회 건설에 앞장서 왔다. 이에 따라 계룡건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79년과 1999년에 대통령산업포장, 1980년, 1998년, 2002년에 대통령표창, 1992년 대한민국 건축대상, 2003년 기업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00년 납세자의 날에 투명한 기업 운영을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고,



대전 예술의 전당



대전 복수리슈빌



대전 월드컵경기장

계룡건설 이시구 사장

계룡인 모두가 계룡건설의 주인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환한 웃음으로 직원들을 맞이하는 계룡건설의 이시구 사장을 만나 그와 계룡건설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계룡건설은 올해 매출액 1조 원으로써 원년의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일류 기업, 흑자 시대' 라는 모토로 명실상부한 초우량 건설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정보화 시스템을 한 단계 개선해 업무 환경 및 지식 시스템을 회사에 정착시키는 등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화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시구 사장은 계룡건설의 올해 목표를 이렇게 제시한다.

“회사의 발전은 곧 계룡인들의 건강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이시구 사장. 건강해야만 웃을 수 있고 웃음이 있는 회사이어야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는 자신의 건강에도 자신한다. 이시구 사장은 매년 신년이 되면 직원들과 추운 겨울 속리산을 오르는데 젊은 직원들에 뒤지지 않고 거뜰히 등반을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래도 그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올해 해도 ‘본인의 건강이 곧 회사의 건강’이라는 생각으로 건강 관리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한다.

창립 이래 지금까지 지켜온 계룡건설의 기업이념은 ‘책임 다하는 기업’. 이시구 사장은 “계룡건설의 기업이념이 부끄럽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가 계룡의 주인이라는 자세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굳은 다짐을 한다.

계룡건설의 이 같은 신념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리슈빌’이다.



리슈빌은 용인, 수원, 부천, 울산 등 전국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대전과 충청권에서는 최고급 아파트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편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방송 매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밑바탕으로 향후 수도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고 말한다.

계룡건설은 36년이라는 세월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사와 직원이 하나가 되어 그 시련을 이겨냈다. 많은 기업들의 위기였던 IMF 시기에도 계룡건설은 탄탄한 기업 구조로 꾸준히 성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믿음은 계룡건설의 최대의 장점이지요, 위기가 곧 기회라는 계룡인들 스스로의 생각이 지금의 계룡건설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며 환한 웃음을 내비친다.

앞으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위해 설립한 계룡장학재단을 통해 장학 사업과 문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며 현재 23위인 시공 능력을 20대로 진입시킨다는 단기적인 목표로 오늘도 그는 뛰고 있다.

건설진흥추진대회에서 석탄사업훈장, 안전경영대상을 연속 수상하며 계룡건설의 대외 이미지 및 신인도 향상을 가져왔다.

계열사로는 종합건설 및 고속도로 유지 보수,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는 종합 도로 유지 관리기업인 고속도로 관리공단을 비롯해 속리산 유스타운과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를 운영하는 계룡산업, 종합 건설업체인 동성건설,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계룡 장학재단 등이 있다.

해외에 박차를 가하다 계룡건설은 해외 주택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 주상복합아파트(브랜드명 계룡하바

로프스크리슈빌) 21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계룡건설은 4월 착공 후 분양을 실시, 2008년 12월 완공할 방침이다. 공급평형은 24, 30, 40, 50, 60평형대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계룡건설이 2004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와 주택건설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공급하는 첫 주택이다.

이에 대해 계룡건설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주상복합아파트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며 하바로프스크 분양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한다.

건설문화를 통해서 인류의 꿈을 실현해나갈 계룡건설의 미래와 고객을 위해 계룡인들은 오늘도 고심하고 있다. ☎